

## “불법파견 자물쇠는 조건 없는 정규직화로 풀어야”

### 만도헬라 노조파괴 규탄,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낙오자 없이 공장으로 돌아가자”

금속노조가 11월 2일 한라그룹 본사인 서울 송파구 잠실 시그마타워 앞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규탄, 조건 없는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조합원들은 조건 없는 정규직화가 만도헬라의 불법파견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수석부지회장 직무대행은 “오늘 만도헬라가 소송 관련 포가 조항과 노동조건에 관해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안심할 수 없다. 만도헬라는 지금까지 계속 말을 바꿨다. 만도헬라 정문을 박차고 들어갈 때까지 강도 높게 투쟁하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들어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30년 전 노조 만들 때 외친 구호가 인간답게 살아보자. 노조활동 보장하라였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이 구호를 외쳐야 한다”라며 “누구나 노조 할 권리,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걸고 싸우자. 민주노조 사수, 노조파괴 중단 구호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꼭 승리하자”라고 격려했다.

김현동 노조 인천지부장은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고 직고

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만도헬라는 아직 직고용하지 않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 지부장은 “금속노동자가 더 큰 투쟁으로 조건 없는 정규직화를 밀고 나가자. 자본의 노예생활을 떨치고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자”라고 호소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 김현동 인천지부장, 이상민 만도헬라비정규직 지회 수석부지회장 직무대리가 대회를 마치고 한라그룹 본사에 들어가 경영진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한라그룹 쪽에 “문제 장기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한라그룹 차원에서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 악질 노조파괴범 법정구속 16일만에 풀려나

### 서울중앙지법, 최동열 기륭전자 전 회장 보석 허가... “피해회복 진정성, 반성 없어, 반드시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가 10월 27일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동열 전 회장은 지난 10월 11일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과 퇴직금 2억7천여만 원을 떼먹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흥회 분회장은 “우리가 임금수령을 거부해 문제를 풀려고 임금을 공탁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는 얘길 들었다. 분회는 사전에 전화나 서면으로 사과나 공탁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최 전 회장이 반성이나 피해복구에 관한 진심 없이 적반하장 주장을 펼쳐 매우 유감스럽

다”라고 비판했다. 기륭전자분회는 사회적 합의를 키지 않고 체불 임금 지급을 미룬 최 전 회장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는 반성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최 전 회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조직해 2심 재판부에 제출한다.